Ⅳ. 보험산업 대응과제

1.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의 이해 및 시장선점

□ 재무건전성 규제강화, 근퇴법 개정, 자산운용 및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등이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.

○ 확정급여(DB)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상존하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해결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강화는 확정기여(DC)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메리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
-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역시 DB형 기업의 이익 압박요인으로 작용

○ 주요국의 경우 DC형 및 개인퇴직계좌(IRP 또는 IRA) 중심으로 퇴직연금시장 재편은 제도적인 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, 우리나라도 DC 및 IRP 중심의 근퇴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

-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중간정산 및 담보대출 완화, DC형 가입자에 대한 추가납입 및 현물이전 허용, 대표사용자제도 도입 등은 DC형 퇴직연금시장을 확대

-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,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대상자 등을 포함한 가입대상자 확대 및 퇴직연금적립금의 연속성 강화는 IRP시장을 확대

○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제한 등의 보수적인 자산운용 규제가 점차 완화될 것이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투자에 대한 이해도도 증대되어 DC와 IRP시장이 성장

○ 고용환경이 점차 연공서열·종신고용 중심에서 성과주의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누진제 성격 등으로 노무관리에 강점으로 작용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메리트 감소

- 조기퇴직 및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통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IRP시장 급성장

□ 퇴직보험(신탁)제도의 유예조치 만료 및 여전히 보수적인 자산운용 및 규제 등으로 당분간 DB형 시장의 성장 및 중요성 유지

○ 퇴직보험(신탁)제도 유예조치가 만료될 예정으로 2010년과 2011년에는 퇴직연금제도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DB형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.

○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법정퇴직금제도에 대한 친숙도 및 보수적인 자산운용 및 규제는 DB형 시장의 중요성을 유지시킬 것임.

-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노후소득재원의 자산운용에 대한 보수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반복되는 금융위기로 인한 학습효과로 인해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수요 유지

□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략전환이 필요함.

○ 향후 DC형 퇴직연금 및 IRP의 시장확대가 예상되므로 시장선점을 위한 다양한 전략마련 및 전략전환이 필요

- DC형 퇴직연금 및 IRP 시장선점을 위해 자산운용 역량의 강화와 자산운용 전문성에 대한 인지도 제고

- 보험모집조직을 활용한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, 이직자 및 퇴직자 중심으로 마케팅 전략 활용

- 확정금리형 또는 변동금리형 위주의 단순한 자산운용 상품전략에서 탈피하고 실적배당형 상품개발 및 건강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운용 전략 마련이 필요
- 특히, 자산축적기뿐만 아니라 퇴직자산이 집중되는 IRP 가입자들의 자산소진기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충족

○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의 이전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영업전략으로 DB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

- 특히, 향후 이전기업들과 DB형 신규가입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므로 제도도입과 운영과정에서 기업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

2.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험관리 및 활용

□ 최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영수지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,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영업경쟁보다는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양상이 있음.

○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확대를 위한 경쟁 가속에 의한 보험시장의 성장은 오히려 보험회사에게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

□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의 고령화는 다양한 고위험군을 양산하며 보험영업의 수지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.

○ 주요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데 100여년이 소요되었으나, 일본이 36년으로 단축시켰고 한국은 26년으로 단축시킬 예정

○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성장 둔화를 통해 보험수요를 억제하고 인구감소를 통해 잠재 보험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에 부담으로 작용

-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이미 OECD 평균을 상회한 반면 건강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아프지만 오래 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애로 인해 보험영업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
-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, 증가한 기대수명은 다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인해 만성질환자의 인구비중을 급격히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음.

□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후소득 관련 보험상품과 건강보험의 수요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연금지급보험상품의 장수리스크와 건강보험상품의 손해율을 확대시킬 것임.

○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종신연금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이는 보험회사에게 장수리스크의 부담 가중을 초래

- 연금수급자의 생존연장으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연급지급비용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의 장수스왑 등과 같은 다양한 장수리스크 헤지 금융기법 활용 가능

○ 건강보험의 경우는 손해율 예측이 어렵고 의료기술의 발전 및 의료비의 증가와 같은 외부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,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금융기법이 부재

-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민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치보다 여전히 낮지만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의료수가와 노인인구비율 및 출산율이 낮기 때문

- 하지만 기타 OECD 국가들에 비해 고가의료장비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의료수가도 점차 상승할 여지가 높으며 노인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높음.
- 특히,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지만 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하는 비급여 부분은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보험회사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취약한 구조

□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시장에 줄 수 있는 환경 및 제도적인 변화를 예측하고,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함.

○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를 건강하게 향유하려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노후소득과 건강 관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, 이 두 가지 기능이 연계되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

○ 또한 정체되어가는 국내 보험시장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계약에 접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추가기능 개발이 시급

○ 반면, 의료기술 발달은 기대수명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자의 인구비중을 증가시키므로 보험기간이 장기화되어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

- 보험가입자의 의료수요 정도와 위험도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 건강보험의 요율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완화가 필요

○ 제도적인 변화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보험상품들의 경우 제도적인 환경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

3. 리스크 중심 경영 및 재무건전성 강화

가. 리스크 중심 경영

□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투자 및 보험영업 구조가 금리 및 주가변동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외부충격에 대응한 리스크 중심 경영이 요구됨.

○ 보험회사의 경영 안정성은 가격변수의 급락, 해외요인과 같은 거시경제 충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충격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필요

○ 시중자금의 단기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상품 포트폴리오 및 자산운용 측면에서 주의

- FY2011에도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인 고금리 제시를 통한 보험회사간 외형확대 경쟁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억제

- 주요 선진국의 양적 완화정책과 글로벌 신용위험 완화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해외투자 자산을 편입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를 경계할 필요

□ FY2011부터 위험기준자본금(RBC) 제도의 전면적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유리스크를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내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기반한 경영전략 체제를 갖추어야 함.

○ 금리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금리확정형 부채의 특성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장기우량채권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

- 부채듀레이션이 자산듀레이션보다 짧은 금리연동형의 경우 납입방법 측면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(일시납 비중 축소, 정기납 비중 확대) 필요

나.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응

□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(IFRS) 1단계가 국내에 도입되고 향후 2단계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내 적용될 예정이므로 개별 보험회사는 실무 적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.

□ 1단계 도입 시 부채적정성 평가, 손해조사준비금, 미경과보험료 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할 부채 규모 파악 및 준비금 부담에 대응해야 함.

○ 부채적정성 평가 시 부채의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하며 부채 증가가 예상되면 증가분에 상응하는 손실은 즉시 손익계산서에 반영

○ 손해조사준비금 제도 도입 시 사업비에 포함되던 손해조사비가 발생손해액으로 분류되고 손해조사비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준비금 증가

- 현행 기준에서 손해조사비는 지급 시점 기준으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고 별도의 준비금 미계상

○ 미경과보험료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미경과보험료 적정성 평가 실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채 적립

○ 지급준비금 평가제도 보완 요구에 따라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현

금흐름을 고려하는 등의 지급준비금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

□ 1단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 정보(특히 리스크) 관련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개별 보험회사는 자사의 역량에 맞게 적정한 공시 수위를 결정해야 함.

○ 회계정책, 리스크관리 및 세부 리스크 정보, 중요 가정 및 불확실성 추정, 가정의 변동 등에 대한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

□ 2단계 기준에서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요구하므로 현행 원가평가 방식과 비교할 때 부채 규모가 기존보다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수익성 변동에 대비해야 함.

○ 공정가치 회계는 보험회사의 이익과 자본 변동성을 높임으로써 자본조달비용을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상품설계 측면에서 변동성을 축소시키려는 노력 필요

□ 공정가치 회계 도입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내재가치 회계의 도입 및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.

○ 보험산업의 장기성을 감안하여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가치를 평가·관리하는 것이 바람직

- 최근 들어 각종 옵션과 보증이 내재된 상품이 증가하여 향후 보험회사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

○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내재가치 산출 원칙을 공동으로 작성하고, 이에 의거하여 지표를 공시할 필요

- 내재가치 평가 요소, 기초율 변경과 민감도, 리스크관리 및 세부 리스크 정보에 대한 공시 필요

□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대응하여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험통계 구축, 회계·계리시스템 개발, 전문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.

다. 재무건전성 강화

□ 금융위기 재발 방지와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감독체계 개선방안이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로 귀결되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보험회사들은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함.

○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가 발표하고 G20에서 논의된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규제 기준의 기본 철학은 보험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새로운 자본비율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[21)]

□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체계가 점진적으로 Solvency Ⅱ로 이행할 것이므로 개별 보험회사는 자사의 자본여력을 감안하여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.

○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고 고위험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 보유 필수

21) 보통주자본과 신종자본증권 등 기본자본(Tier 1) 비율 상향, 위기시 손실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손실보전완충자본 의무적립 등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자본요구량이 증가하고 자본의 질(quality of the capital base)도 제고하도록 함.

○ 자사 특성에 맞는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체제를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허용 한도 내에서 손익을 관리하고, 장기적으로는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추구

- 업무영역 확대, 신상품 도입 시 장기적인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기업가치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 및 수익을 관리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

□ RBC제도는 요구자본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,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부채 증대를 통해 가용자본 규모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자본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.

○ 감독당국에서 보유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므로 기업공개 및 자본시장을 통해 기본자본 확대 필요

4. 소비자 보호 및 신뢰도 제고

가. 소비자 보호

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강화하는 추세[22]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트렌드는 국내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임.

○ 미국, 영국 등에서는 건전성 규제 기관과 별도로 소비자 보호 기관의 설립을 추진 중이며 동 기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

22) 미국에서는 FRB 내에 금융소비자보호국(CFPB: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)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 기능을 통합하였으며, 영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시장청(CPMA: 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 Authority)을 신설할 예정임.

제정,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, 금융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

○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정책당국의 기조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되어 관련 제도가 크게 강화될 것

□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보험업법에서도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관련 제도 정비 및 내부통제를 통해 변화된 법·규제에 적극 대응해야 함.

○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내용은 보험상품 설명의무 강화, 적합성 원칙 도입, 허위·과장광고 규제 등

- 최근 보장 내용이 다양한 통합상품[23]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가입 시 계약자에게 상세한 보장내역과 보험금 지급 기준[24]을 제시하고, 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에 대한 설명 제공 필요

- 향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, 현재 재무상황 분석 및 향후 재무상황 예측, 연령,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여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내부 매뉴얼 마련

- 보험광고 시 보험금 지급한도·지급제한 조건을 누락하거나 보장금액이 큰 특정 내용만을 강조하는 행위 금지

---

23) 통합보험은 여러 종류의 보험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상품으로 생명보험에서는 종신보험과 치명적질병(CI)보험, 실손의료보험을 아우르고 있으며 손해보험에서는 상해·질병·화재·재물·배상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음.

24) 암보험, 장기간병보험, CI보험 등 지급요건이 까다롭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상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가입 전 설명을 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해야 할 것임. 신규 출시되는 암보험은 보험료 납부방식이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구분되고 보험금 규모도 암을 세 단계(고액암, 일반암, 소액암)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므로 계약자가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.

○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 강화, 모집질서를 준수하는 대형 법인대리점과의 선별 계약 체결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정책 필요

- 단기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정책은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므로 지양

□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함.

○ 기 도입된 불완전판매비율 공시제도[25], 보험상품의 사업비 공시강화[26] 등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 도모

□ 수요 주체인 소비자의 금융이해력을 증진시켜 자신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차원에서 금융(보험)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.

나.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

□ 보험계약의 장기성과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산업의 특성상 향후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임.

---

25) 2010년 5월 18일 도입

26) 2009년 4월부터 저축성 변액보험에 대해 사업비 등의 세부내역이 공시되었으며 2010년 10월 1일부터 판매되는 신계약에 대해서는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의 세부내역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시함.

○ 시민단체·정부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의 필요성이 제고되고, 소비자의 금융지식도 높아짐에 따라 신뢰도가 매우 중요

○ 완전판매를 통해 소비자 민원을 감소시키고 보험소비자가 위험보장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

○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우리 보험산업의 외형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뢰도 제고 필요

□ 보험회사는 보험산업이 갖는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윤리경영, 보험서비스의 저변 확대,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.

○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임직원의 도덕성 함양에 힘써야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해야 함.

○ 보험회사가 소비자보호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획득할 때 보험산업의 이미지 개선 및 보험수요의 저변 확대 등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